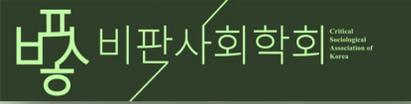


비판사회학 소식지



권두언

반세계화 재세계화 그리고 쿠바



■ 서동진
(부회장/계원예술대)

쿠바엘 다녀왔다. 연구년을 맞아 캐나다에 얼마간 머물 기회가 있었다. 어디서 지나가는 말로 캐나다에 왔다면 쿠바는 한 번쯤 가봐야 한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번쩍 정신이 들었다. 정말, 그럴 수 있단 거지? 반신반의하며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다.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 탓에 어지간한 나라면 국경을 닫아걸거나 갖은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고 출입을 통제하던 때였다. 쿠바가 세계 어디에도 비할 데 없는 공중보건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걸 알고 있던 터라, 쿠바에 입성하는 일은 조금 수월치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었다. 그러나 쿠바 역시 외국인 출입에 주춤한 탓인지 아니면 내국인 해외 송출을 꺼린 탓인지, 쿠바 행 항공권은 없었다. 구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항공권은 반년도 훌쩍 지난 10월이나 11월에 떠나는 것이었다. 그럼 그렇지, 내게 그런 운이 따를 리 없지 하고 억울한 심정으로 체념하였다. 그런데 쿠바엘 갈 수 있다는 기대가 그리 쉽게 잦아들 리 없었다. 잠자리에서 어찌다 뒤척이다 보면 문득 쿠바란 이름이 떠오르고, 혹시나 하는 바람으로 인터넷을 뒤지곤 했다. 그러길 몇 주 지났을까, 놀랍게도 여행사를 겸한 어느 항공사가 쿠바 단체여행 모객을 시작하는 공고를 띄웠다. 올-인클루시브(all-inclusive) 그러니까 항공권을 포함해 숙박과 식사까지 일체 포함한 쿠바 휴양지 관광객 모객이 시작된 것이다.

(다음 면 계속)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쿠바는 멕시코의 휴양지와 더불어 기나긴 잿빛 겨울을 보내야 하는 캐나다인들에겐 제법 값싸고 가까운(토론토에서 쿠바의 유명한 휴양지 바라데로까지는 고작 3시간 조금 넘게 걸린다) 목적지였다.

그런데 낭패였다. 모처럼 재개된 쿠바 여행 프로그램은 내가 찾고 싶었던 쿠바의 수도, 아바나와는 거리가 먼 휴양지뿐이었다. 아바나의 호세 마르티 국제공항과는 한참 먼 바라데로 공항을 향하는 비행기뿐이었지만 개의치 않았다. 아바나로부터 3시간여 떨어져 있어 도착 후 다시 온 만큼 버스를 타고 가야 하더라도 아바나에 갈 수만 있다면 어찌도 괜찮았다. 지체 없이 나는 예약을 했다. 그리고 마침내 쿠바엘 갔다. 엉뚱하다 싶겠지만, 나의 쿠바 여행의 목적은 한 가지였다. 어느 곳을 방문하겠다는 것이었다. 법대 대학생 시절의 피델 카스트로가 성난 목소리로 시위를 조직하던 아바나 대학 정문의 긴 계단식 회랑도 체 게바라를 비롯한 1959년 쿠바 혁명의 영웅들의 흔적과 기록이 가득한 혁명 박물관도 내겐 가장 큰 관심사는 아니었다. 내가 진정으로 찾아보고 싶었던 곳은 어느 극장이었다.

그 극장은 그저 채플린 극장으로 알려진, 지금은 한국 사회의 어법을 빌자면 예술영화 전용관 비슷하게 운영되는 극장이었다. 그 곳은 1966년 이른바 3대륙회의(The Tricontinental Conference)가 개최된 장소였다. 다들 심드렁한 낯빛으로 “뭐 그런 곳이 있었겠지” 하겠지만, 내겐 그곳은 정말이지 전율할 만한 곳이었다. 난 당장 후끈 달아오른 낯빛으로 눈앞의 친구에게 지체 없이 이렇게 말할 태세였다. “너, 체 게바라가 한 그 말 기억하지? ‘둘, 셋, 많은 베트남을 만들자’던 그 사람의 유명한 말, 말이야. 그게 언제 어디서 한 말인 줄 알아? 1966년 3대륙회의에서였어. 그런데 체는 그 자리에 없었지. 그때 그는 볼리비아에서 게릴라 투쟁 중이었거든.” 온전한 이름으로는 찰리 채플린 극장. 아바나의 중턱을 차지하는 베다도란 이름의 지역 복판에 자리한 이 극장은, 내가 그려온 제3세계 성좌 속의 꼭짓점을 차지하는 이름이었다. 이는 제3세계 프로젝트의 시작이자 비동맹운동의 기원을 알린 인도네시아의 반동 회의의 장소만큼이나 내겐 가슴 뛰게 하는 곳이었다.

(다음 면 계속)



이미 10년도 훌쩍 전에 반동을 찾았었다. 그 후로도 나는 몇 차례 그곳을 찾았다. 수카르노가 이끌던 인도네시아 정부는, 나사콤(NASAKOM), 그러니까 민족주의 더하기 이슬람주의 더하기 공산주의라는 기이한 이데올로기를 통해 반제국주의적 민중적 발전의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수카르노는 자신의 나라에 머물지 않고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지도자들을 초청해 새로운 국제 블록을 형성했다. 지금은 조롱거리처럼 여겨지는 ‘비동맹 진영’이 그것이었다. 반동 체제를 이끌었던 인도네시아에서 미국의 공작으로 행해진 반공주의적 쿠데타로 대학살이 자행되고 있던 해인 1965-66년 사이에, 점점 더 급진화 되어가던 민족해방 프로젝트는 쿠바에서 정점에 이르고 있었다. 그리고 아시아-아프리카-남미 인민연대기구(OSSPAL)가 형성되었다. 난 그 순간을 만들었던 곳에, 누군가는 퇴행적인 회상이라고 조롱할지라도, 가보고 싶었다.

제국주의를 뒤이은 또 다른 이름의 새로운 제국주의를 가리키는 이름이 ‘세계화’일 것이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이 자리에서 결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국제통화기금이나 세계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을 내세우고 세계화페로서 달러의 위세를 빌어 추진된 서구 주도의 세계화는 또한 자신의 내부에 반세계화의 역학을 내장하고 있었다. 글로벌 독점 자본의 이해에 반하는 나라들에 갖은 명분을 내세워 정치적,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물론 저 악명 높은 제재(sanctions)를 통해 세계 무역과 금융 활동에서 배제하였다. 쿠바와 북한, 이란, 베네수엘라 등은 물론 근년엔 중국과 러시아가 그러한 제재의 대상이 되었다. 중국 주도의 국제 금융 체제나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와 같은 유라시아 연결 프로젝트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반하는 새로운 재세계화의 전조가 될 것이라는 예측은 어쩌면 소망 사고에 가까운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쨌든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이제 제 운명을 다한 것처럼 보인다. 최근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그런 변화를 부추길 것이다.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논리에 희생당했던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의 많은 나라들은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려 할 것이다. 누구는 낙관적으로 제2의 반동 체제가 도래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다시 민족적, 민중적 발전의 경로에 접어든 국가들 사이에서 호혜적인 협력과 연대가 만들어진다면, 이는 좋은 일이다. 쿠바의 영웅적인 생존은 그러한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증좌일 것이다. 가끔 어떤 사회는 자신이 실존한다는 것을 넘어 다른 세계를 향한 꿈을 보존한다.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의 반제국주의적 연대와 협력. 이는 오늘날 거의 불가능한 꿈처럼 보이는 구호일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꿈이 불타올랐던 장소가 있다. 그리고 용케 그 장소는 새로운 꿈이 현실적일 수 있음을 증명해준다. 내게 쿠바는 그런 곳이다.

(끝)

비판사회학 콜로키움

제22회 비판사회학 콜로키움

변화하는 자본주의와 구조적 쟁점

3월 31일(목) 오후 7시

참가 | Zoom (회의실 ID 919 2651 3503 / 암호 516444)

사회 | 이정연 (서울여대 교양대학)

발표1 | 디지털 자본주의의 특성: 시장과 노동통제의 급진화
임운택(계명대 사회학과)

발표2 | 자본주의 위기와 불로소득 자본주의
지주형(경남대 사회학과)

토론 | 박찬중(충남대 사회학과), 구분우(창원시정연구원)

문의 | sansahak1984@gmail.com

제23회 비판사회학 콜로키움

20대 대선평가 집담회

ZOOM 생중계

프로그램

사회 : 임운택(계명대, 비판사회학회장)

발표1 : 노승욱(한신대), 20대 대선과 노동체제 변동

발표2 : 백승욱(중앙대), 촛불의 오해, 처도(佛刀) 응징, 그리고 자유주의라는 질문

발표3 : 조은주(전북대), 정치적 감정, 유기적 지식인, 그리고 안정의 위기

토론 : 전혜원(시사인), 김내훈(연세대)

2022년 4월 8일(금) 오후 4시

Zoom ID/PW : 815 8808 3299 / 30365

문의 | sansahak1984@gmail.com

제24회 비판사회학 콜로키움

발전주의는 언제 일상이 되었는가?

도시 중심층 가정성의 확립으로 본 현대 정착의 양상과 시간성

2022.05.27.(금) 오후 4시

온라인 중계

Zoom ID: 912 6450 6817 PW: 830601

사회 | 신희주 (가톨릭대 사회학과)

발표 | 김명수 (전남대 사회학과)

토론 | 황선재 (충남대 사회학과), 최선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문의 | sansahak1984@gmail.com



비판사회학교

<2022 비판사회학교>가 열립니다!

2022 비판사회학교

수강생 모집

비판사회학회는 비판적 연구와 실천적 변화를 위한 연구자 모임입니다. 사회학에 대한 도전적 관심을 가진 대학원생·학부생의 학문적 관심사 발전을 돕고자, 여름방학 동안 <2022 비판사회학교>를 운영합니다. 학교 수업만으로는 충족하기 어려운 내용을 사고하고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회학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현대 사회에 대한 비판적 연구에 관심 있다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비평 비판사회학회

비판사회학회에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여름방학 기간 비판사회학교를 운영합니다. 학교 수업만으로는 충족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함께 사고하고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회학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현대 사회에 대한 비판적 연구에 관심있는 분들도 참여 가능합니다. 많은 관심과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개설과목

3개 과목 개설 / 각 과목 당 강좌 5회 운영 (강좌는 zoom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

- ① 비판사회이론: 경제학 비판
- ② 세계화와 사회변동
- ③ 노동사회학

운영기간

7월 18일 ~ 8월 12일

수강료

과목당 7만원 (수강신청은 과목별로 가능하며, 과목 내 강좌별 신청은 불가함)

신청기간

7월 1일 ~ 7월 10일

신청방법

구글폼으로 신청서 접수 [신청서 링크](#)

학회계좌로 수강료 납부 후 신청이 완료됨. 신청완료 후 이메일 개별 통지 (계좌: 국민은행 533301-01-096442 / 비판사회학회)

문의

sansahak1984@gmail.com

■ <2022 비판사회학교> 강의 일정

비판사회이론 : 경제학 비판

* 모든 강좌 진행시간은 14:00~16:50로 동일

칼 마르크스의 정치경제학비판과 사회적인 것 백승욱(중앙대 사회학과)	7월 18일(월)
에밀 뒤르케임의 비판사회학과 사회적인 것, 그 의미와 한계 권오용(충남대 사회학과)	7월 19일(화)
막스 베버의 '경제와 사회'에서 사회적인 것의 쟁점 김성운(문화사회연구소)	7월 20일(수)
미셸 푸코의 비판: 공리주의, 자유주의, 고전경제학 조은주(전북대 사회학과)	7월 21일(목)
뤽 볼탕스키의 자본주의의 비판과 새로운 자본주의 정신 김주호(경상국립대 사회학과)	7월 22일(금)

세계화와 사회변동

* 모든 강좌 진행시간은 14:00~16:50로 동일

사회변동의 이론적 조망: 세계체계분석과 역사적 자본주의 백승욱(중앙대 사회학과)	7월 25일(월)
고전적 자유주의에서 케인스주의적 자유주의로 구본우(창원시정연구원)	7월 26일(화)
케인스주의에서 신자유주의로의 전환 박찬중(충남대 사회학과)	7월 27일(수)
신자유주의적 전환과 금융세계화 윤종희(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7월 28일(목)
한국 자본주의의 변동: 발전주의에서 신자유주의로 김명수(전남대 사회학과)	7월 29일(금)

노동사회학

* 모든 강좌 진행시간은 14:00~16:50로 동일

생산방식-작업조직-노동과정 김철식(한국학중앙연구원)	8월 8일(월)
노동체제와 노동정치 노중기(한신대 사회학과)	8월 9일(화)
노동시장과 불평등 조혁진(한국노동연구원)	8월 10일(수)
국제적 분업구조와 노동이주 김철효(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	8월 11일(목)
노동의 디지털화 임운택(계명대 사회학과)	8월 12일(금)

2022 비판사회학교 수강 안내

개설과목

3개 과목 개설,
각 과목 당 5회 강좌 운영
①비판사회이론: 경제학 비판
②세계화와 사회변동
③노동사회학

기간

7월 18일(월)-8월 12일(금)
(과목별 수강일은 다음 장 참고)

수강신청기간

7월 1일(금)-7월 10일(일)

수강료

과목당 7만원, 3개 과목 함께 수강 시
비판사회학회 회원 자격 2년 부여
수강신청은 과목별(5개 강좌)로 가능,
과목 내 강좌별 신청은 불가함

수강신청방법

구글폼(forms.gle/ayWEZtLZ
H1uWCjqx8)으로 신청서를 접수,
수강료 납부 후 개별 공지
(국민은행 비판사회학회
533301-01-096442)

● <비판사회이론: 경제학 비판>과 <세계화와 사회변동>은 2021 비판 사회학교의 성과를 모아 출간한 비판사회학 강의 시리즈 교재로 진행

상세 강의계획서 보기

■ <2022 비판사회학교> 강의 교재

비판사회이론

: 경제학 비판

Critical Social Theory

백승욱 · 김주환 · 김성윤 · 조은주 · 김주호 · 지음

한울
0171001

세계화와 사회 변동

Globalization and Social Change

백승욱 · 구본우 · 박찬중 · 윤종희 · 김영수 · 지음

한울
0171001

<비판사회학 강의> 시리즈를 발간하며

비판사회학회는 1984년 설립 이후 지난 40여년간 현대사회의 비판적 이해를 위한 학문적·실천적 노력에 많은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현대 사회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발전시키고 공유하기 위한 연구자들의 모임을 지속해왔으며 새로운 사회적 쟁점을 분석하고 해결하기 위한 이론적 관점을 찾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왔습니다.

비판사회학회는 학회구성원들이 연구하고 토론한 성과를 관심있는 분들과 공유하기 위한 교육과 강연 활동 또한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2021년부터 매년 하계에 비판사회학교를 열어 중요한 주제들에 대한 연속 강연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비판사회학회에서는 이 비판사회학교 강의 성과를 <비판사회학 강의> 시리즈로 계속 발간할 계획입니다. 2021년 첫째 비판사회학교에서 강의한 성과가 이번에 <비판사회이론>과 <세계화와 사회변동> 두 권의 교재로 발간되며, 이후에도 비판사회학교의 성과를 후속 발간할 계획입니다.

이 강의 교재가 사회학 전공자뿐 아니라 현대사회에 대해 비판적 관점에서 성찰해보고자 하는 많은 분들께도 도움되기를 기대합니다.

비판사회학회 운영위원회

2022 하계 학술대회

비판사회학회 2022 하계 학술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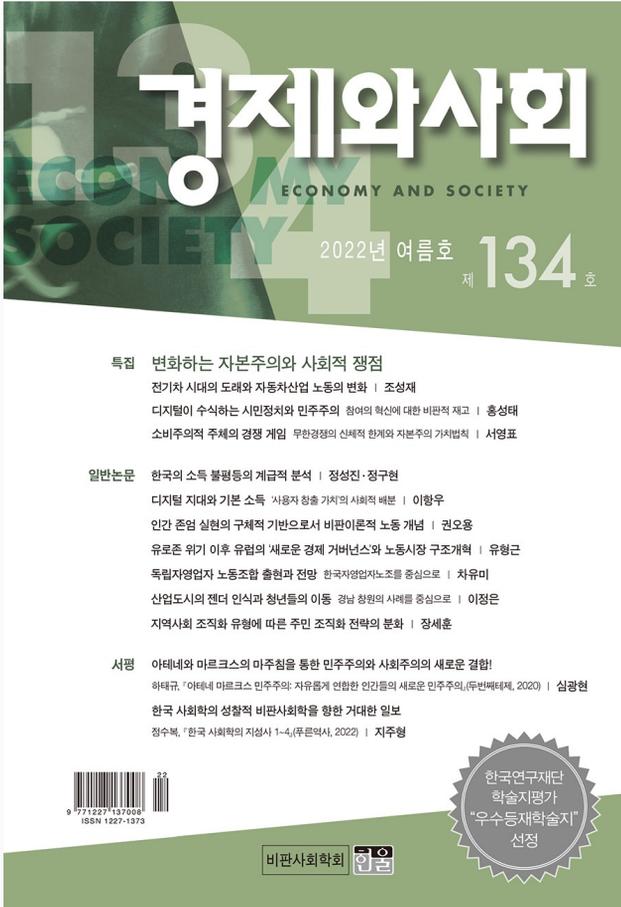
비판사회학회는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BK21 '파편사회의 사회적 연대와 통합' 사업팀과 함께 1박 2일(8.18~19) 일정으로 전북대학교에서 2022 하계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하계 학술대회에서는 다음 세대 연구자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여 비판사회학을 지향하는 연구자들 간의 학문적 소통과 유대감을 높이고 연구하는 삶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도 나누고자 합니다.

- 날짜: 2022년 8월 18~19일(목,금)
- 장소: 전북대학교 인문사회관
- 내용: 대학원생 학술대회(연구논문 12편, 연구계획 10편) 및 특별세션
- 참가: 학회 정회원(참가비 7만 원, 1박 2일 참여 시_숙소 지원)
대학원생(참가비 3만 원, 1박 2일 참여 시_숙소 및 교통비 지원)
- 후원: 국민은행(예금주: 비판사회학회) 533301-01-096442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고민 끝에 대면회의를 기획한 만큼 학회 회원분들의 많은 참여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학술대회 프로그램은 7월 중순에 다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판사회학회 운영위원회

『경제와사회』 2022년 여름호(통권 제134호) 목차



■ 특집: 변화하는 자본주의와 사회적 쟁점

전기차 시대의 도래와 자동차산업 노동의 변화

조성재

디지털이 수식하는 시민정치와 민주주의

홍성태

소비주의적 주체의 경쟁 게임

서영표

■ 일반논문

한국의 소득 불평등의 계급적 분석

정성진·정구현

디지털 시대와 기본 소득

이항우

인간 존엄 실현의 구체적 기반으로
비판이론적 노동 개념

권오용

유로존 위기 이후 유럽의 '새로운 경제 거버넌스'와
노동시장 구조개혁

유형근

독립자영업자 노동조합 출현과 전망

차유미

산업도시의 젠더 인식과 청년들의 이동

이정은

지역사회 조직화 유형에 따른
주민 조직화 전략의 분화

장세훈

■ 서평

아테네와 마르크스의 마주침을 통한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의 새로운 조합

하태규, 『아테네 마르크스 민주주의: 자유롭게 연합한 인간들의 새로운 민주
주의』(두번째판, 2020)

심광현

한국 사회학의 성찰적 비판사회학을 향한 거대한 일보
정수복, 『한국 사회학의 지성사 1~4』(푸른역사, 2022)

지주형

〈경제와 사회〉 링크

『경제와사회』는 회원들이 논문을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원문(PDF)을 담은 이메일 저널레터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경제와사회』 2022년 여름호(통권 제134호) 머리말

경제와사회
머리말

악다구니 세상과 자본주의

주은우

(편집위원장/중앙대 사회학과)

불과 5년 만에 정권이 바뀌고 전임 대통령은 시골로 내려갔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바람대로 ‘잊힌 사람’이 되지는 못할 것 같다. 지지자들도 계속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 같지만, 우선은 당장 자신의 사저 부근에서 앰프까지 동원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는 정치적 반대자들의 집회와 시위에 시달려야 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온갖 스티커와 플래카드로 도배한 차량을 끌고 가서 자신의 주장을 목청껏 내지르는 것 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 보인다. 그러므로 타인에 대한 배려를 기대하는 것은 언감생심이다. 덕분에 평온하던 시골 마을의 어르신들만 졸지에 병원을 찾을 만큼 정신적·신체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데 이런 광경은 지난 수년 동안 매일같이 목격할 것이다. 문제의 그 대통령을 비난하는 집회가 목사라는 사람의 주도로 밤마다 광화문광장을 점령했고, 덕분에 시민들은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자유민주공화국 중 하나란 사실을 날마다 진저리 치며 실감했다. 광화문 일대의 상인들과 청와대 부근 주민들은 심각한 경제적 손실과 일상생활의 방해에 고통스러워 했지만, 대한민국에선 목소리 큰 자들이 이긴다. 효자동인지 삼청동인지 청와대 인근에선, 장애인 학생들마저도 통학길에 최소한의 배려조차 받지 못했고 학부모들은 분통만 터뜨렸다. 팬데믹을 맞아서야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니, 바이러스에 감사해야 할 지경이다.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는 왜 꼭 악다구니와 분노의 배설이 되어야만 하는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타인의 권리는 목살해도 되는 것인가? 보수든 진보든 타자에 대한 배려는 진영을 불문하고 갈수록 설 자리를 잃어가는 것 같다. 삶이 팍팍해서, 여유가 없어서 그렇다고 하면 그만인 것인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이런 세상의 모습을 본다. 참여민주시민이라 자처하는 사람들이 자신과 의견이

(다음 면 계속)

『경제와사회』 2022년 여름호(통권 제134호) 머리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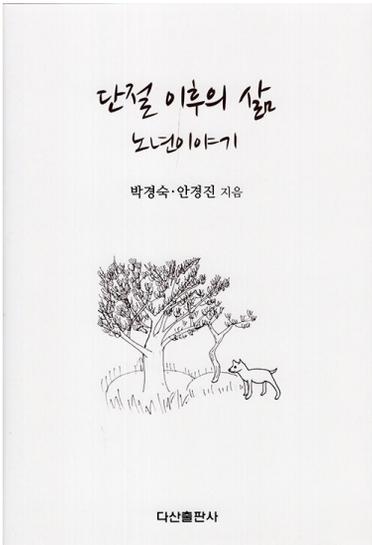
다르다고 SNS 댓글을 통해 득달같이 달려들고, 이걸 정치적 자산이랍시고 정치인들은 ‘좌표 찍기’까지 서슴지 않는다. 악에 받친 모두는 모두의 꼬투리를 잡으려 혈안이고, 누구와의 통화든 모두 녹음한다.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지 못해 안달인 이 세상에서, 대한민국에선 총기 소지가 허용되 지 않은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아니나 다를까, 총잡이의 나라 미국에선 불과 며칠 전에도 십 대의 무차별 난사에 교사 두 명과 함께 열아홉 명의 어린 초등학생 들이 목숨을 잃었다. 매일 총격 사건이 벌어지는 이 나라는 민주주의의 상징이라 할 의회 의사당마저 폭도들에게 난입당한 사건으로 역사의 신기원을 기록했다.

오래된 악습 때문인지, 이런 악다구니 세상의 도래에 자본주의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질문하지 않기 어렵다. 나쁜 것으로 판단되는 것은 모두 자본주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좋은 것으로 생각되는 모든 것을 자본주의 덕으로 간주하는 것만큼이나 빈약한 사유가 될 위험을 안고 있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의사소통을 직접적이고 즉시적인 것으로 만드는 만큼 갈등을 격렬한 것으로 만들고 대화를 감정의 배설로 바꾸어버리는 디지털 기술도 수익을 낳는 사업이 되었을 때 제도화되고 상용화되었으며, 악만 남은 사람들이 죽일 듯이 서로 드잡이하기만 하는 것도 다 먹고살기 어려운 경쟁지상주의 세상 때문이라는 ‘유물론적’ 설명은 오늘날의 ‘성찰적 현대성’의 시대엔 자기합리화의 핑곗거리로 전락할 정도로 진부한 상투구가 된 지 오래란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전직 대통령의 사저를 향해 욕설을 퍼붓는 행위도 정치적 신념이나 분노의 정열에 따른 것만은 아니지 않은가? 자신의 유튜브 영상에 클릭할 조회 수와 그에 따른 수익의 계산이 ‘합리적인’ 경제적 동기로 추동하고 있으니, 그 악다구니는 명실상부 ‘자본주의 정신’의 발현일 것이다. 만약 베버(Max Weber)가 기겁을 한다면 프랑스 학자들[볼탕스키(Luc Boltanski), 시아펠로(Eve Chiapello)]의 주장을 인용해 ‘새로운 자본주의 정신’의 발현이라고 해도 좋다. 아무튼 이 악다구니 세상을 구성하는 제반 영역과 모순들의 중층결정된 복합체의 최종심급에 생산양식이든 생산관계든 자본주의가 자리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니, 이 지옥보다 더 지옥 같은 사회 또는 사회의 실종과 자본주의가 연관되는 방식을 따져보아야 한다. 비판사회학은 자본주의를 데우스 엑스 마키나(deus ex machina)로 설정하지 않으면서도 그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다.

(끝)

회원신간소개



단절 이후의 삶 노년이야기

다산출판사, 2022년 2월, 272쪽

[목차링크](#)

저자: 박경숙(서울대), 안경진(서울과학기술대)

노인, 가족 그리고 노인 돌봄 종사자 20명과의 심층면담을 통해 한국사회에서 나이듦, 노화에 대한 인식과 체험, 돌봄 경험과 인식, 임종기, 죽음에 대한 인식 그리고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새롭게 성찰하며 노년의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을 그렸다. 저자는 우리사회에서의 노년에 대한 두려움, 혐오, 편견과 무지가 숨기고 있는 의미들을 찾기 위해 이 연구를 시작하였고, 노년 이야기를 통해 왜 늙어가고 쇠퇴하는 것이 두려운지, 돌봄이 왜 부담스러운지, 왜 죽음과 삶의 의미가 사라지는지에 대한 답을 찾으려 하였다. 특히, 코로나 상황속에서 일상의 삶의 단절을 경험하면서, 인간 존재의 조건에 대한 깊은 성찰에 이른다. 코로나로 단절을 체험한 세대에게, 노년기 삶의 비존재감, 고통, 죽음의 이슈는, 더 이상 노년만의 경험일 수 없다. 노년들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 단절 이후의 삶을 돌아본 이 연구는 제목처럼 아직은 노년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는 아동, 청년, 중년에게까지 그들의 미래인 노년의 삶에 대한 관심과 단절의 의미를 성찰할 것을 촉구한다.



우주철학서설 어둠의 인식론과 사회철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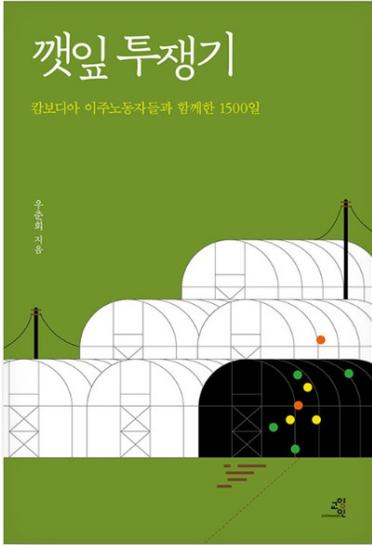
철수와영희, 2022년 6월, 356쪽

[목차링크](#)

저자: 손석춘(건국대)

20세기 이래 우주과학의 발전으로 인류의 우주 인식은 18세기 철학자 칸트의 선형적 이념으로서의 '세계'나 19세기 철학자 콩트가 알고 있던 '우주'에 견줄 수 없을 만큼 풍부해졌다. 현대 우주과학의 발견 앞에서 자아나 주체를 중심에 둔 근대철학의 한계가 드러났다. 그동안 유럽과 동아시아를 가릴 것 없이 고대 철학 이후 중세를 거쳐 실천적 유물론에 이르기까지 20세기까지의 철학은 모두 현대 과학이 발견한 우주의 실상을 알지 못한 채 사유한 것이다. 이 책은 '지금까지 철학은 우주를 망각했다'는 명제 아래 새로운 문명의 서둘이 될 '우주철학'을 제안한다. 인류의 우주적 진실과 삶의 의미를 탐색한 우주철학은 20세기 이래 우주과학의 발전에 근거해 과학적 선형론과 사회인식론을 뼈대로 실천명령을 제안한다.

회원신간소개



깻잎 투쟁기 캄보디아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한 1500일

교양인, 2022년 5월, 250쪽

[목차링크](#)

저자: 우춘희(매사추세츠대)

깻잎, 고추, 토마토, 딸기, 계란, 김, 돼지고기..... 우리 밥상에 오르는 매일의 먹을거리는 이주노동자의 손을 거쳐 온다. 전체 농·어업에서 임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 10명 중 4명이 이주노동자이고, 채소나 과일을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그 비중이 훨씬 크다. 고령화와 청년층 이탈로 텅 비어버린 농촌의 일터는 “이제 외국인 없으면 농사 못 짓는다”라는 말이 당연하리만큼, 이주노동자의 땀으로 채워지고 있다. 《깻잎 투쟁기》는 우리 먹을거리의 핵심 생산자이자 한국 사회의 엄연한 구성원인 이주노동자의 삶을 전한다. 연구자이자 활동가인 저자는 직접 깻잎밭에서 일하며 노동자들이 처한 열악한 노동 조건과 생활환경을 보았고, 농장주들로부터 농촌 사회에 이주민이 들어온 후 달라진 풍경과 농사일에 관해 전해 들었으며, 새벽에 찾아간 인력사무소에서는 미등록 이주민(‘불법체류자’)이라는 낯선 세계를 만났다. 이 책은 결코 ‘인력’으로 치환될 수 없는 노동자들의 삶을 말한다. “이주노동자가 온다는 것은 단순히 ‘인력’이 오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오는 일이다. 이주노동자의 손과 함께 삶과 꿈도 온다.”



신자유주의 노동체제와 민주 노조 운동

후마니타스, 2022년 4월, 408쪽

[목차링크](#)

저자: 노중기(한신대)

2016년 촛불 투쟁으로 대표되는 한국 사회의 사회적 모순은 대개 종속 신자유주의 노동체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예컨대 청년 고용과 비정규 노동 문제, 재벌 개혁과 불평등, 낡은 양당 체제와 위임 민주주의, 미투 운동과 페미니즘 논란, ‘헬 조선’과 저출생 문제 등이 모두 그러하다. 전태일 이래 과거 한국 사회의 역동적 변동에 노동문제가 근저에서 구조적 동인이 되었던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마찬가지로 현재의 사회적 모순을 해결할 장기적 동인도 더 성장한 노동운동일 개연성이 크다. 노동체제론이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이 지점이었다. 필자는 줄곧 ‘노동체제’의 관점에서 한국 사회와 노동문제를 바라보고자 했다. ‘1987년 노동체제’, ‘종속 신자유주의 노동체제’, ‘억압적 배제 체제’ 등의 개념을 만들고 이를 과거와 현재 우리 노동문제를 이해하는 도구로 사용했다. 짧지 않은 시간, 많은 노동자의 삶의 고투를, 그 흔적과 의미를 나름대로 기록하며 이해하려는 노력이었다. 그 작은 결과 중 하나가 이 책이다.

회원신간소개

성공의 뒷에 빠진 대한민국

후마니타스, 2022년 5월, 326쪽

목차링크

저자: 신광영(중앙대), 윤홍식(인하대) 엮음

한국 사회가 빠진 뒷은 한국 사회가 실패한 결과가 아니라 세계와 우리 스스로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찬양해 마지않았던 그 '성공'의 결과다. 이처럼 성공이 곧 뒷이 된 현실은 한국 사회가 그 '뒷'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대안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사회가 뒷에서 빠져나온다는 것은 한국 사회가 자신이 성공할 수 있게 한 바로 그 유산을 폐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성공의 경험을 우리 스스로 부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성공의 뒷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뒷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찾는 일은 해방 이후 한국 사회가 걸어왔던 누적된 유산의 역설적이고 중층적인 성격을 정확하게 집어내고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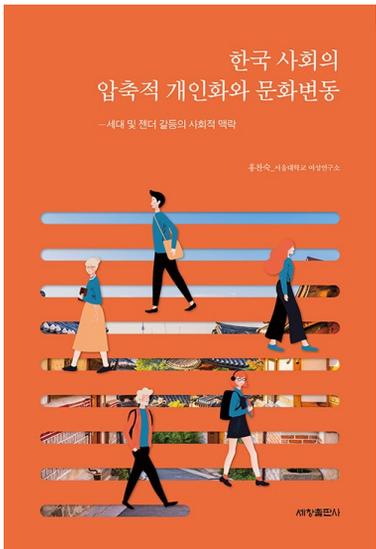
한국 사회의 압축적 개인화와 문화변동

세창출판사, 2022년 3월, 26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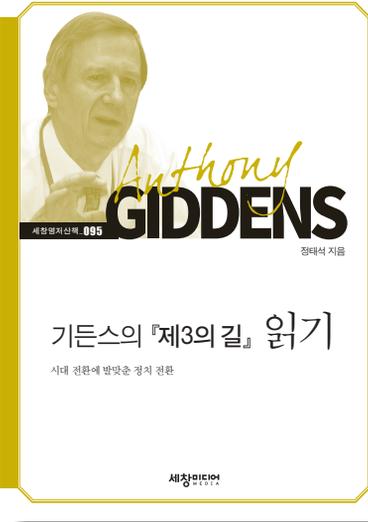
목차링크

저자: 홍찬숙(서울대)

이 책에서 저자는 '사회변동' 관점에 기초하여, 한국 사회에서 관찰되는 문화변동과 정치변동을 압축적 개인화라는 한국 사회 특유의 근대화 경로를 통해 설명했다. 서구의 순차적 개인화와 한국의 압축적 개인화의 가장 큰 차이는, 전근대적 가부장제의 지배에서 해방을 꾀하는 근대적 '자유'의 주체가 서구에서는 시민계급 남성이었으나, 한국에서는 현재 청년여성들로 수렴되고 있다는 것이다. 청년여성들은 서구의 페미니즘 담론을 들여와 의지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의 청년남성은 자신들의 문제를 표현하고 분석하며 규범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담론을 스스로 생산해야만 한다. '극우화'는 '근대성의 야만', 즉 '이성'의 이름으로 집단적 이해를 정당화해서 타 집단을 '생물학(=과학)적으로 타자화하고 또 그 과정에서 권력이나 헤게모니적 지배뿐만 아니라 폭력의 사용까지 정당화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의 압축적 개인화에서 극우화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으로의 퇴보와 같은 이념적 성향 및 그와 발맞추는 온라인 청년문화로 이해된다. 이것은 사회적 소통의 중요성을 말해 준다.



회원신간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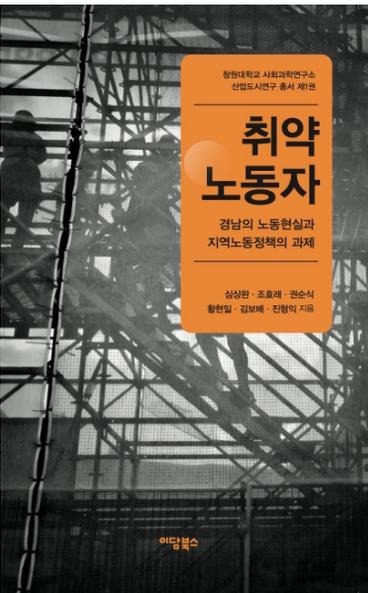
기든스의 『제3의 길』 읽기 시대전환에 발맞춘 정치 전환

세창출판사, 2022년 6월

목차링크

저자: 정태석(전북대)

기든스의 『제3의 길』은 지금으로부터 20여년 전 중도좌파정당 또는 진보정당을 위해 제안한 정치적 혁신 전략이었다. 하지만 20여년 전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그 시절에 기든스가 고민했던 시대 상황의 변화는 현재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발달하며 세계화의 영향이 확대되어 가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우파와 좌파 또는 보수와 진보의 기준이나 경계선이 복잡해지고 또 모호해지는 다원화된 한국사회에서, 여전히 『제3의 길』은 진보정당이 어떻게 대중적 지지를 넓혀 갈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해 중요한 착상들을 제공해준다고 하겠다. 시대 상황의 변화나 한국사회의 특수한 정치·사회 지형에 모든 것을 적용하기에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변동과 정치적 지지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정치 노선과 정책을 혁신하고자 하는 정신은 여전히 배워야 할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취약노동자 경남의 노동현실과 지역노동정책의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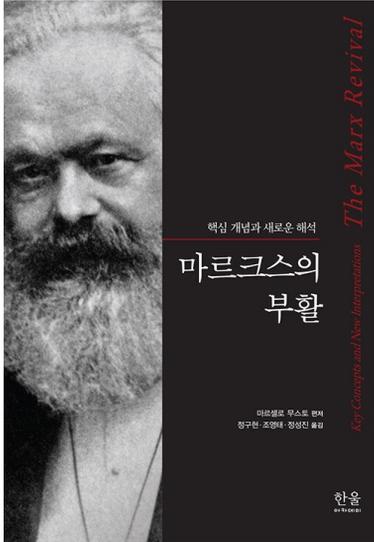
이담북스, 2002년 5월, 451쪽

비매품

저자: 심상완(창원대) 외

이 책은 경상남도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에서부터 출발하였다. 코로나19 위기가 한창이던 2020년에 경남지역 노동자 7,000명에 대한 설문조사와 함께 수십 명의 노동 전문가 및 노동자들에 대한 면접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노동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노동자들의 실태를 제조업, 비제조업, 특수고용형태근로, 프리랜서, 청년으로 나누어 다각도에서 살펴보고 있다. 이와 함께 실태 조사를 근거로 취약노동자의 권익 개선을 위해 필요한 지역노동정책의 과제를 도출하고 있다. 이 책은 단지 경상남도 취약노동자의 실태를 피상적으로 묘사하는 데 그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취약노동자의 문제점을 해결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고민하는 가운데 취약 노동자의 취약성과 그 원천을 파헤치는 시도를 하고 있다.

회원신간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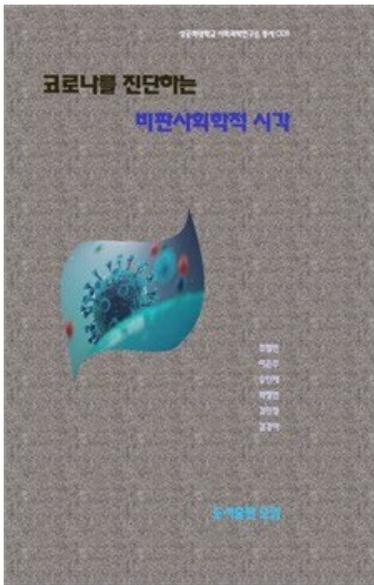
마르크스의 부활 핵심 개념과 새로운 해석

한울아카데미, 2022년 6월, 589쪽

목차링크

편저: 마르셀로 무스토/번역: 정구현, 정성진(경상국립대), 조영태(런던대)

이 책은 2020년 케임브리지 대학교 출판사에서 출간된 *The Marx Revival: Key Concepts and New Interpretations*를 번역한 것이다. 이 책에서 세계적으로 저명한 학자들은 핵심 개념 22가지를 선별하여 200년 전 탄생한 마르크스의 사상과 오늘날 사회를 연결시켜준다. 그리고 이 연결은 명칭에 걸맞지 않던 소위 '사회주의' 국가의 방식과는 사뭇 다른 새로운 관점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관점은 한편으로는 소련 붕괴 이후 마르크스에 대한 '정통적' (또는 갖가지 오류를 품은) 해석이 힘을 잃고 대안적인 해석으로의 길이 열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마르크스, 엥겔스 저작 전집인 MEGA2의 출판을 두고 세계의 연구자들이 마르크스, 엥겔스의 저술을 재검토하게 되면서 탄생했다. 또한 이 관점은 소련 붕괴 이후 20-30년 간 짧은 승리감을 누리다가 지금은 복합적 위기 앞에서 그 무능력함에 몸 둘 바를 모르는 오늘날의 자본주의로부터 그 필요성이 요청되었다. 이 책은 마르크스를, 익숙하지만 낯설게 이해될 필요가 있는 이 인물을 학계의 최첨단 논의를 가지고 부활시키는 작업인 것이다.



코로나를 진단하는 비판사회학적 시각

성공회대 사회과학연구소

비매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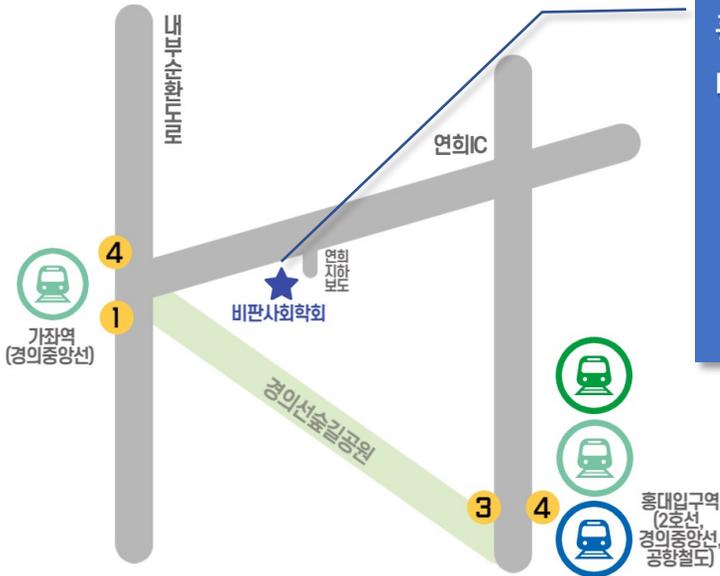
저자: 김민정(성공회대) 외

2019년 이후 한국사회를 비롯한 전 세계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불러온 새로운 사회 현상들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가 코로나19의 여러 현상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 정가: 10,000원(택배비 별도)
- 구입문의: 김경아(010-8726-1197)
- 계좌: 국민은행(예금주: 김경아) 743202-04-221067

학회 사무실 이전

“학회 사무실을 마포구 연남동으로 옮겼습니다.”



홍대입구역 2번출구로 나와 마포05번 버스를 타고 연남동주민센터 하차 



연남동주민센터에서
도보로 4분(200m)

회원동정

- 신재열 회원: 일본 아오야마가쿠인대학 지구사회공생학부에서 와세다대학 사회과학부로 이직(4월 1일자)

신입회원

(3월~6월)

- 정회원 양경욱(순천향대) 차유미(전북대) 정경윤(성공회대)
이선호(연세대) 이효주(코넬대) 이승봉(한국직업능력연구원)
우춘희(매사추세츠대)
- 준회원 김나현(성균관대)

특별회비 납부

(3월~5월)

- 이기홍(강원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100만원

회원현황

(6월 30일 현재)

- 총회원 276명: 정회원 247명 / 준회원 13명, 특별회원 13명, 기관회원 3개

운영위원회 활동 보고

- 2022년 3월 30일. 3월 운영소위 회의
- 31일. 제22회 비판사회학 콜로키움 개최 [변화하는 자본주의와 구조적 쟁점]
- 2022년 4월 08일. 제23회 비판사회학 콜로키움 개최 [20대 대선평가 집담회]
- 22일. 4월 운영소위 회의
- 2022년 5월 12일. 3차 운영위원 전체회의
- 27일. 제24회 비판사회학 콜로키움 개최 [발전주의는 언제 일상이 되었는가?]
- 2022년 6월 05일. 긴급 운영소위 회의
- 09일. 학회 사무실 이전 (녹번동에서 연남동으로)
- 13일. 6월 운영소위 회의
- 19일. 하계 학술대회 발표자 선정 회의
- 25일. 4차 운영위원 전체회의 및 학회 사무실 이전 개소식
- 28일. 운영소위 후속회의

2022년 임원진

■ 운영위원회

- | | | |
|----------------------|-------------------|-----------------|
| 회장 임운택(계명대) | 부회장 최인이(충남대) | 부회장 서동진(계원예대) |
| 운영위원장 홍성태(고려대) | 연구위원장 이정연(서울여대) | 연구위원 김도균(제주대) |
| 연구위원 김명수(전남대) | 연구위원 김성윤(문화사회연구소) | 연구위원 김주환(동아대) |
| 연구위원 박상희(서울시립대) | 연구위원 육주원(경북대) | 연구위원 이태정(성공회대) |
| 연구위원 전윤정(국회입법조사처) | 연구위원 전원근(제주대) | 연구위원 조은주(전북대) |
| 정책위원 강민형(연세대) | 정책위원 김재형(방송통신대) | 정책위원 김주호(경상국립대) |
| 정책위원 박지훈(중앙대) | 정책위원 박치현(대구대) | 정책위원 백영경(제주대) |
| 정책위원 신희주(가톨릭대) | 정책위원 이도훈(연세대) | 정책위원 이정은(창원대) |
| 정책위원 정수남(전남대) | 정책위원 조혁진(한국노동연구원) | |
| 정책위원 최종숙(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 운영간사 박동열(중앙대) |

■ 편집위원회

- | | | |
|--------------------------------------|-----------------|--------------------|
| 편집위원장 주은우(중앙대) | 편집부위원장 지주형(경남대) | 편집위원 구본우(창원시정연구원) |
| 편집위원 권오용(충남대) | 김민정(성공회대) | 편집위원 김여진(강원대) |
| 편집위원 김철식(한국학중앙연구원) | 편집위원 김철효(전북대) | 편집위원 박정미(충북대) |
| 편집위원 유형근(부산대) | 편집위원 윤상우(동아대) | 편집위원 윤상철(한신대) |
| 편집위원 장귀연(경상국립대) | 편집위원 정재원(국민대) | 편집위원 정태석(전북대) |
| 편집위원 주혜진(대전세종연구원) | 편집위원 채오병(국민대) | 편집위원 최 현(제주대) |
| 편집위원 하대청(광주과학기술원) | 편집위원 홍덕화(충북대) | |
| 재외편집위원 구해근(Univ. of Hawaii at Manoa) | | 재외편집위원 권학준(리쓰메이칸대) |
| 재외편집위원 박현옥(York University) | | 편집간사 김인숙(서울대) |

+ 회원가입 및 회비납부 안내 +

□ 정회원: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이상의 학력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경제와사회> 투고자격 및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회비는 개인의 상황과 능력에 따라 아래의 회비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 | |
|----------------------------|--------------------------------|
| (1) 연 24만원 (월2만원) | (2) 연12만원 (월1만원) |
| (3) 연6만원 (비전임/정년퇴임교수/박사과정) | (4) 평생회원 특별회비 50만원 이상 (정년퇴임회원) |

□ 준회원: 석사과정 대학원생 (준회원 회비: 연2만원)

▶ 회비납부계좌: 국민은행 533301-01-096442 (예금주: 비평사회학회)